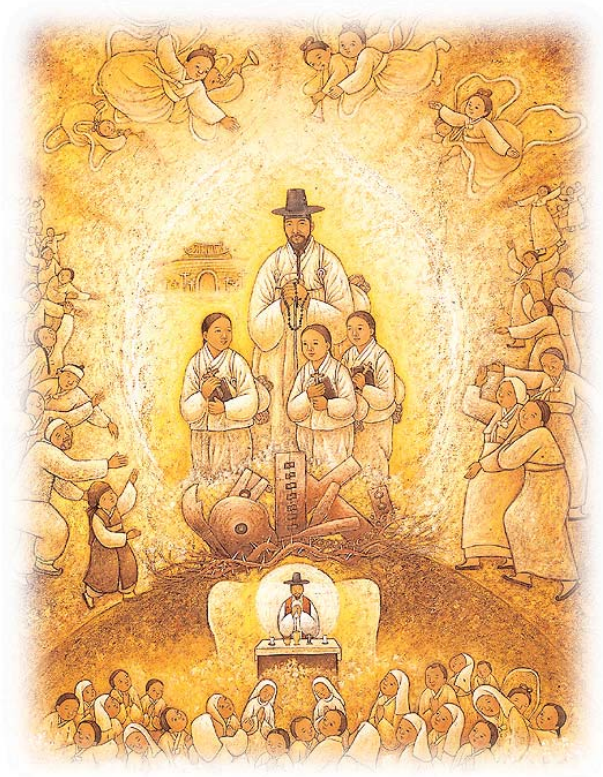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9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1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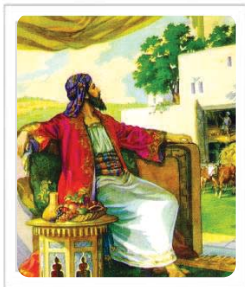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 주 예수님! 저희 생각을 바르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소서.
- 주님, 말씀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발견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는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평가 기준을 나누어 봅시다.
- 성경 속의 어리석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봅시다.
-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과 나

내가 믿는 하느님과 나를 믿는 하느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축복을 보고 하느님을 믿지만 하느님은 나를 보고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손에 들린 복덩이만을 좇지만 하느님은 복덩이를 좇는 나를 좇습니다. 나는 하느

님의 호주머니를 보고 사랑하지만 하느님은 나를 보고 사랑하십니다. 나의 관심사는 축복이지만 하느님의 관심사는 나입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과 나를 믿는 하느님이 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느님에 대한 오해부터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식으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하느님 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느님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해 하느님을 사랑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축복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도 나를 믿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이 우리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우리 삶의 목적이십니다. 그것만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김강정 신부님의 글에서)

사탄은 '내일 해.',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천사는 계획적인 삶을 원하고 사탄은 무질서한 삶을 원합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하여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고, 미래의 나를 그려보게 합니다. 사탄은 목적 없이 '내일 하지.', '조금 있다 해.', '점심 먹고 하지.' 그리하여 오늘이 없는 삶이 되게 합니다. 무질서한 삶의 원흉인 사탄의 영은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천사의 영은 결정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게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 결정하시고 행하십니다. 결정함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결정합니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이 '예' 씨라서 '예스'를 좋아하십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니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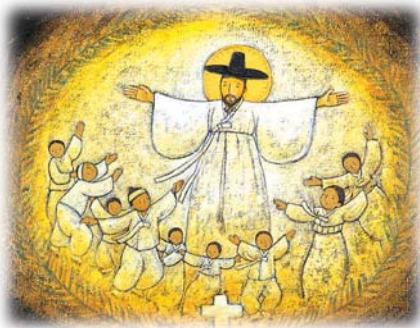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2절을 부릅니다.

궁금
했어요



“시복 시성을 위한 도보순례”라는 조끼를 입고 걷는 단체가 있는데 시복시성이 무엇인가요?

시복시성은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합니다. 순교자나 성덕이 뛰어난 분이 선종하면 그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순교나 성덕의 평판이 높은 분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된 이후 시복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시복시성에는 통상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순교자에게는 기적 심사가 면제됩니다. 이어 시성을 통해서 성인품에 오릅니다. 성인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경하는 분이고, 복자는 그 지역 교회에서 공경을 받습니다. 해당 축일



의 성무일도(매일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기도)와 미사경문에 성인을 위한 기도문이 삽입되는 영예를 얻습니다. 하지만 사망 후 5년 이내에는 시복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성인의 축일은 대개 사망일로 지정되지요.

(「소곤소곤 열추 알겠습니다」, 장재봉, p.76~77)

작은 사랑안에 큰 믿음의 공동체

- 고현본당 2구역 7반 중통골 소공동체 -

- 김영화(막달레나) : 고현본당 2구역 7반 반장 -

+찬미 예수님

저는 고현본당 2구역 7반의 반장으로서 4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본당 2구역 7반은 30여 년의 본당 역사에 비해 이제 만 5년 남짓 된 신생 구역으로 아파트와 주택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 이곳에서의 공동체 모임은 3~4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모임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몇 달에 걸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본당 구역분과의 활동계획 아래 쉬는 교우와 전입 교우 방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어느덧 공동체의 인원이 7~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당 구역분과의 활동계획 아래 관공성사표를 전하면서 쉬는 교우와 전입 교우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방문 가정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여 공동체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쉬는 교우와 전입교우 가정의 기념일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친숙하게 공동체에 동화될 수 있도록 공동체원 전체가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는 70세 되신 할머니 자매님이 계시는데 평일미사는 물론, 그 연세에도 성경공부를 하시며 믿음과 신앙심으로 저희 젊은 사람들의 좋은 표양이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공동체 모임 때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덕분에 공동체원 모두가 아침, 저녁기도를 하며 하루를 하느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느님과 함께 마감하

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느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려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4명의 어린이가 첫영성체를 하였고 2명의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는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좋은날을 선택하여 야외 모임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주님께서 지으신 자연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공동체가 모여 자연을 만끽하며 자신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하반기에는 한 해를 마감하며 그동안 생계활동으로 인해 모임에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과도 함께 모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는 공동체이지만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23)라는 복음 말씀처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큰일을 맡은 것처럼 충실히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고현본당 2구역 7반 중통골 소공동체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복음...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